

9강 사이버 불교

1. 학습목표, 학습내용 및 핵심 포인트

[학습내용 및 핵심포인트]

1. 불교의 성립과 대승불교의 전개
2. 불교의 전파과정
3. 불교의 변용과 전래의 의의

[학습목표]

1. 불교의 성립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대승불교의 성립과 그 전파과정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3. 불교가 동아시아 사회에 끼친 영향과 각 지역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2. 사례

엔닌(794~864)

836년, 천태학을 배우기 위하여 당으로 건너가려고 하였으나, 두 차례나 실패하였다. 838년의 세 번째 항해에 성공하여 양주에 도착하였으나, 타고 간 배가 모래톱에 좌초되어 배는 완전히 부서진 상태로 겨우 상륙할 수 있었다. 천태산 입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엔닌은 일본 사신단과 떨어져 불법체류를 강행하게 된다.

거동이 수상한 승려로 몰리자 엔닌은 자신은 신라승려로 주장하였으나 현지인들은 그가 쓰고 있는 말이 신라어가 아니라고 하여 관아에 고발하였고 그는 다시 일본 사신단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양주(揚州)의 개원사(開元寺)에서 수학하고, 다음해 귀국하려 하였으나, 역풍을 만나 산둥반도에 표착하였다. 그곳에서 적산 법화원의 신라승려의 권유로 1270km를 걸어 오대산(五臺山)으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 『마하지관(摩訶止觀)』을 배우는 등 842년까지 당에 체류하였다. 당 무종의 불교탄압에 직면하여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신라인을 도움을 받았고, 마침내 847년에 신라의 상선을 타고 일본으로 돌아왔다.

이후 불교 교리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저술하는 한편 천황에게 보살계를 내리는 등 일본 불교계에 중요한 족적을 남겨 최초로 대사(大師)라는 호를 받게 되었다. 그가 남긴 9년 6개월에 걸친 당 체류기인 『입당구법순례행기』는 당시 당의 사회상뿐만 아니라 신라 적산원 등 신라인들의 활약상에 대해서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3. 본 학습 내용

1. 불교의 성립과 대승불교의 전개

1) 불교의 성립

석가모니가 직접 설법하고 또 그 제자들이 승가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수행하였던 초기불교 단계를 거쳐, 교리상의 문제로 분열되면서 부파불교의 단계에 들어선다. 기원 전 1세기 경에는 이타행을 강조하는 한편 부처에 대한 믿음만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며, 보살이 인간을 보살려준다는 신앙이 나타나면서 대승불교가 성립된다.

- ① 기원전 6세기 경 브라만 계급 중심의 엄격한 신분 제도와 신에 대한 제사를 중시하는 브라만교에 반대하는 종교 운동 → 불교, 자이나교의 탄생
- ② 불교의 핵심교리 : 緣起, 輪廻轉生, 修行을 통한 解脫 → 불교는 도시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전파
- ③ 출가자들을 중심으로 승가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계율에 따르면서 수행(초기불교)
- ④ 이후 교리상의 문제로 여러 부파로 분열 → 부파불교(상좌부와 대중부를 기본으로 20부로 분열) 대표적 부파 : 說一切有部
- ⑤ 기원전 1세기 경 재가자를 중심으로 利他行을 강조하는 운동이 일어남. 석가모니를 신격화.
- ⑥ 부처에 의지하여 중생이 구제될 수 있다고 믿음
- ⑦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로 보살이라는 개념을 만들
- ⑦ 사람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믿음 → 대승불교의 성립

2) 대승불교

① 대승불교의 주요경전

반야경 - 空, 무상의 지혜인 반야바라밀을 설한 대승불교의 기본 경전

법화경 - 모든 사람을 결국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담은 경전

무량수경 - 아미타불을 의지하여 극락정도에 왕생할 수 있음을 설한 경전

- ② 空 : 모든 현상(존재)은 서로 因緣(緣起)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인연의 관계성이야말로 空이다. 따라서 현상은 空이다. 色卽是空, 空卽是色 : 모든 현상은 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이야말로 곧 현상이다. 나무와 풀과 흙으로 집을 지으면, 집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다시 나무와 풀과 흙으로 분해하면 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이것이 空이다.(龍樹의 中論)
- ③ 淨土信仰 :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성불할 수 있기를 원하는 부처에 의지하여 정토에서 태어날 수 있고,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 ④ 菩薩信仰 : 부처를 대신하여 현세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는 존재에 대한 믿음
- ⑤ 6세기 이후에는 대승불교의 마지막 단계인 밀교가 성립 → 밀교는 힌두교의 주술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고 현실을 긍정하는 논리를 수용하였으며, 주술과 수행을 위한 다양한 의례와 도구, 도상을 갖춤.

2. 불교의 전파과정

인도에서 성립된 대승불교는 한편으로는 간다라를 거쳐 비단길 상의 구자(龜茲), 고창(高昌), 둔황(敦煌)을 지나 북중국으로 유입되었고, 해로로는 북부베트남(자오 찌)을 거쳐 남중국으로 전해지기도 하였다.

이후 불교는 다시 한반도의 삼국과 일본열도의 왜로 전파되면서 기존의 토착문화를 크게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고대문화를 생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밀교는 역시 동남아시아와 티벳·중국 등으로 전파되었으며, 티벳의 라마불교와 일본의 밀교화된 천태종과 진언종으로 융성하게 되었다.

1) 불교의 중국 전파

- ① 기원 전후한 시기에는 서역으로부터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임.
- ② 후한 말부터 위·서진시대에 이르러, 인도 및 서역에서 건너온 승려들이 불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됨. → 후한이 멸망한 후에 오호십육국시대에 들면서 불교가 본격적으로 보급.
- ③ 후조의 석호(재위 334-349)는 불도징의 감화를 받아 불교를 신봉하게 되었으며, 335년에는 한족의 출가를 용인. → 한족에 의한 불교교단이 성립.
- ④ 지겸이나 축법호 등을 비롯하여 서역에서 온 구마라십 등이 많은 경전을 번역하여 중국불교의 발전에 크게 공헌.
- ⑤ 중국 남조에서 융성하기 시작한 불교는 수·당시대를 거치면서 황금기를 맞았으나, 회창의 법난(842)을 계기로 중국불교는 점차 쇠퇴.
- ⑥ 6세기에는 달마가 선종을 전해, 후에는 임제종과 조동종의 양대 유파가 생김.

2) 한반도, 일본, 베트남 전파

- ① 한반도 삼국에는 4~5세기 대에 전래되었다고 전함. 이후 신라에서는 법흥왕 때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기에 이름.
- ② 그 이후 남조의 양과 교류하면서 열반경의, 사리 등이 전래되어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
- ③ 9세기 초에는 통일신라에 선종이 전해지면서 지방 각지에 9산 선문이 개창되었으며, 이후 한반도의 불교는 선종의 영향력이 커짐.
- ④ 고려시대에는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려는 의천의 천태종과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고자 한 지눌의 조계종이 나타나 불교 교학의 정점에 도달함.
- ⑤ 일본에서는 백제 성왕대에 공식적으로 불교가 전래. 7세기 경에 많은 사찰들이 건립됨
- ⑥ 8세기 중엽 동대사가 건립되고, 성무천황은 자신이 삼보의 노예라고 공언하여 불교에 깊이 귀의함.
- ⑦ 9세기 중엽에 일본열도에는 밀교가 전파되어, 주술과 기도를 통한 호국불교의 성격이 강화됨.
- ⑧ 특히 밀교적 주술, 계율, 참선, 정토신앙을 종합한 천태종의 연력사는 이후 중세 불교의 원류가 되었음.
- ⑨ 3세기 경에는 북부 베트남에도 대승불교가 전해짐. 인도와 중앙 아시아의 승려들이 무역선을 타고 해로로 베트남에 와서 불교를 전파하고 불경을 번역. 소그디아나 출신의 강승회가 대표적인 인물이며, 그는 후에 오의 손권을 불교에 귀의시켰다고 전함.
- ⑩ 이후 베트남 사회에는 불교가 확산되었으며, 10세기에 독립하고 나서도 통일신라나 고려에서와 마찬가지로 15세기 말까지 각 왕조의 적극적인 보호 하에 융성함. 승려는 왕의 국사로서 정치적으로도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였음.

3. 불교의 변용과 전래의 의의

한편 불교는 중국문화와 타협한 결과, 여러 가지로 원래의 인도불교와는 다른 특징을 갖게 되었다. 먼저 중국을 지배하게 된 북방민족들이 한족의 유교를 대신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채택한 것이 불교였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구제보다는 국가의 진호를 목적으로 한 호국불교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는 점이다.

1) 불교의 변용

- ① 불교가 발생할 당시에는 인도의 민중 사이에서 먼저 퍼져나갔으며, 교리 자체도 민중의 구원을 우선 →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이를 먼저 받아들인 사람은 중국 사회의 지배자층이었음
- ② 지배자들에게 불교의 교리보다도 주술력이 의미가 있었으며, 불교건축·불상 등은 신앙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배를 합리화하거나 화려하게 장식하는 수단으로도 인식.
- ③ 승려와 불교 교단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두고자 하였으며, 출가도 국가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승려가 포교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
- ④ 또한 지배자를 부처와 동일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황제를 재림한 부처로 여기기도 하였고, 불상의 얼굴을 현실적인 지배자의 얼굴을 본떠서 만들기도 함
- ⑤ 한편 황제·귀족·평민·노예 등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엄격한 현실적인 차별과 그에 따른 고통도, 불교 교리에 따라 자신의 공덕과 업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여, 차별받고 있는 인간들이 그러한 차별과 불평등을 참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함.
- ⑥ 즉 중국과 한국 일본에 처음 수용된 불교는 지배자를 위한 불교였음. 이러한 불교를 흔히 호국불교라고 부름.
- ⑦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로 쓰인 경전들을 표의문자인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생김. 특히 복잡한 개념어로 사용된 불교교리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그런 문제들이 적잖이 발생하였음.
- ⑧ 다음으로 불교 경전들이 인도에서 성립된 시기와 관련없이 모두 석가모니가 설법한 내용으로서 유입되어 번역된 결과, 이들 경전을 어떻게 하면 모순이 없도록 배열하여 그 내용들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지가 커다란 문제였으며, 이러한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각 종(宗)이 성립.
- ⑨ 그 이외에도 중국적인 사회현실에 적응하기 위하여 원래 인도에는 없었던 새로운 경전들을 만들기도 함. 예를 들어 원래 불교에서는 중시되지 않았던 효에 관해서 『부모은중경』을 만들어 불교에도 효라는 관념이 있다고 주장.
- ⑩ 토착신앙과 밀접하게 결합되는 모습도 나타남. 특히 산악신앙이나 용신신앙이 불교와 혼합되는 양상이 뚜렷함. 바다를 향해하는 승려를 도와준 용이나 비를 내리는 일을 도운 이무기 등의 전설이 대표적인 예이며, 토착신이 불교를 수호하는 신으로 수용되는 경우도 흔히 있었음.

2) 불교 전래의 의미

동아시아 사회는 불교의 전래를 통하여, 동일한 종교·문자·문화·예술 등을 공유하게 되었다. 또한 승려들이 불교를 배우거나 불경을 입수하기 위하여 빈번한 왕래를 하게 되면서, 동아시아 사회 내부의 인적·지적 교류가 본격화되었다. 그 이전 시기에도 정치·경제·군사적인 목적을 가진 사신의 왕래나 상인들의 활동이 있었지만,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불경이 함께 전해지면서 이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자·한문에 대한 관심이 비약적으로 커졌다.

- ① 불경을 통해서 익힌 한문을 바탕으로 승려들은 국적과 관계없이 한자를 써서 의사를 소통할 수 있게 됨 → 한자와 한문은 동아시아 사회의 공용어가 됨.
- ② 이두와 같이 한문 해독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 생겨나는가 하면, 한자를 변형하여 일본어의 음을 나타내는 가나라는 문자도 만들어짐.
- ③ 불교가 사회의 중심적인 신앙으로 자리하게 되면서 지배자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믿게 되었고 이르는 곳마다 사찰이 건립됨.
- ④ 불타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하여 빈민을 위한 구제시설을 세우거나 다리를 놓고 저수지를 축조하기도 하고 나무를 심기도 함.

- ⑤ 북위의 승지호와 불도호, 양무제가 세운 무진장, 고려의 제위보·동서대비원·혜민국, 일본의 비전원과 시약원 등은 모두 빈민구제와 치료를 목적으로 함.
- ⑥ 또한 불교의례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여 뼈단지에 넣어 묻는 화장문화가 보급되었다.
- ⑦ 불교예술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침. → 불상, 불화, 불교건축은 새로운 조형미와 기술의 결정체였으므로 각 사회에 강한 자극을 줌. 붓·먹·안료의 제조법이나 새로운 회화기법, 불상주조법, 건축술 등이 승려들을 통해서 전래.
- ⑧ 다양한 지식과 기술이 집적되어 있는 사찰은 다양한 사람들이 교류하는 장소이자 지식을 전파하는 중심지의 역할. → 당시의 사찰은 국적을 초월한 공간이었으며, 승려는 신분을 따지지 않는 국제인들

3) 지역적 개성

그렇지만 불교가 동아시아 세계를 공통성의 틀 안에 묶어두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각 나라마다 개성적이고 특수한 변형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탑파(塔婆)이다. 석가모니가 입적한 후 제자들은 그의 사리를 나누어 스투파(stupa)를 만들었다. 산티(Santi)의 대탑으로 대표되는 인도의 탑은 돌과 벽돌로 쌓은 반구형이고, 그 위에 네모꼴의 석조물과 일산(日傘)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스리랑카나 파키스탄 등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스투파들이 남아 있다.

- ① 부처의 사리를 모시는 스투파가 중국에 전해지면서 원래 중국에 있던 누각 건축물과 결합되어 목탑의 형식으로 변화.
- ② 그밖에도 중국에서는 벽돌로 쌓은 전탑(塼塔), 금속으로 만든 탑 등 다양한 형식이 나타남. 그러나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탑은 대안탑(大雁塔)과 같이 압도적으로 전탑이 많음.
- ③ 한반도에서는 석탑이 우세를 점하고 있음. 물론 처음에는 중국으로부터 다층 누각 형태의 목탑, 전탑 등이 전래되었으나 석탑으로 정립됨.
- ④ 유명한 감은사지 동서 3층 석탑이나 고선사지 3층 석탑이 대표적인 사례. 이후 통일신라시대는 물론이고 조선시대까지 주로 석탑이 건립되었는데, 고려시대의 월정사지 석탑이나 조선시대의 경천사지 13층 석탑 등이 대표적인 사례.
- ⑤ 일본의 경우는 백제의 기술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원흥사(元興寺)라는 절을 세웠는데, 절의 한 가운데 목탑이 있는 형식 → 법룡사(法隆寺)의 5층 목탑. 나라시대부터 에도시대까지 일본 탑의 주류를 이룬 것은 목탑.
- ⑥ 처음에는 다층 누각 형태의 목탑이었으나, 가마쿠라시대부터 다보탑(多寶塔)이라고 부르는 탑들은 반구형 혹은 구형의 부분을 갖춘 형태로 변화.
- ⑦ 이처럼 탑이 석가의 사리를 모신 부처의 무덤으로 출발하였으며, 이후에도 그 기본적인 성격에는 변화가 없으나, 동아시아 삼국에서 각각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면서 서로 다른 형태로 전개되어 갔음.
- ⑧ 이러한 특성은 자연환경이 결정한 측면이 강함. 중국의 황하 유역은 넓은 황토층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일찍부터 이를 재료로 건물을 짓거나 성벽을 쌓았음. 한반도의 경우는 화강암과 같은 좋은 석재를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점차 재료를 석재로 사용하기에 이르러, 중국과는 크게 다른 불탑의 형태를 구축. 일본열도의 경우는 한반도보다 습윤하고 또 나무의 성장속도가 빠르므로 나무를 사용한 건축물이 일찍부터 발달하였고, 중국과 백제에서 건너간 목탑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로 목탑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4. 퀴즈

1. 대승불교와 부파불교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파불교는 개인의 구제를 우선으로 하였는데, 대승불교는 중생의 구제를 중시하였다.
- ② 석가불 이외에도 아미타불, 약사불 등 다양한 부처들을 숭배하였다.
- ③ 보살이 이 세상에 머물면서 중생을 도운다는 보살신앙이 발달하였다.
- ④ 출가한 승려들을 중심으로 한 수행을 중시하였다.

2. 불교와 관련된 시대상의 설명과 맞지 않은 것은?

- ① 후한시대 - 불경의 번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 ② 오호십육국시대 - 불교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함.
- ③ 남북조시대 - 지배층이 깊이 불교에 귀의하면서, 많은 사원이 건립됨.
- ④ 수당시대 - 불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불교가 크게 융성함.

3. 불교가 동아시아 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빈민 구제를 위한 각종 시설들이 설치되어 사회 내부의 갈등을 완화시킴.
- ② 불교는 지배층의 종교로서 일반 백성이나 노비들에게는 수용되지 않음.
- ③ 동아시아사회가 동일한 종교, 예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됨.
- ④ 한자 한문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공용어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문자의 발달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침

5. 학습정리

- 대승불교는 부파불교와 달리, 재가자 중심, 이타행, 부처를 통한 구원, 정토신앙, 보살신앙 등을 주된 내용을 하고 있음.
- 불교는 해로를 따라 동남아시아 일대를 거쳐 남중국으로, 육로로는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거쳐 북중국 지역으로 전파됨.
- 중국에서 불경이 한역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불교는 지배층을 위한 종교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강해졌으며, 그래서 호국불교라고 부름.
- 불교는 동아시아 사회가 종교, 문자, 예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함.
- 한편으로 같은 불교를 수용하면서도 각 지역은 개성적인 불교문화를 성립시킴.